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중앙아시아 텍스트

송정수*

■ 목 차 ■

- I. 서론
- II.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중앙아시아 텍스트: 기원-형성-발전
- III. 결론

국문요약

1930년대 전반기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가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하던 시기인 동시에 창작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이 시기 플라토노프에게 공식적인 활동 및 출판은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침묵의 시기'에 플라토노프의 일상 기록과 더불어 작품 스케치가 담긴 작가의 메모일지가 가장 빼곡하게 채워져 나갔다. 한편 1930년대 플라토노프 창작을 관통하는 중앙아시아 텍스트 역시 메모일지의 기록과 무관하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통해 얻은 사막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문화 공간에 대한 경이로운 인상은 1930년대 전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 작가의 메모일지를 촘촘하게 메우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동양의 테마와 연결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작품 층위에 반영된다.

이처럼 1930년대에 집필된 플라토노프의 작품은 그가 1934년과 1935년 초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던 경험과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중앙아시아 테마'를 형성해내게 된다. 따라서 플라토노프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1930년대 작품과 메모일지, 에세이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플라토노프의 세계관과 시각이 변화되는 과정과 그 근거를 상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플라토노프 창작에서 중앙아시아 테마가 단순히 '동양'에 관한 감상적 글쓰기 소재에 머물지 않고, 당시 아시아를 문명에 의해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동시대 작가들의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문명의 기원으로서 아시아 일대를 바라보려는 플라토노프 특유의 포스트식민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해내는 동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 '유토피아 vs 반유토피아'라는 다분히 이분법적인 구도 또는 신화적 사유 속에서 진행했던 플라토노프 작품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작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복자의 시선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대안으로서 아시아를 바라본 플라토노프의 시선을 면밀히 분석해봄으로써, 그의 작품 속에 현대에도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부교수

여전히 유효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주지하다시피, 플라토노프는 자신의 주인공들을 종종 경계의 상황,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만들곤 했으며, 그 자신 역시 예술가로서의 소명과 기술자로서의 책무라는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는 곧 이상적인 삶과 현실 속의 삶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기도 했다. 수많은 연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30년대 전반은 작가 플라토노프의 사회적-정신적 탐색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시기”¹⁾이다. 1993년 10월, ‘러시아문학연구소(ИРЛИ)’에서 열린 제5차 플라토노프 세미나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창작 진화 과정과 제 문제에 대해 온전히 헌정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나탈리야 코르니엔코(Н. Корниенко)는 작가의 소설군을 토대로 플라토노프 창작 시기 구분에 관한 기준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코르니엔코는 플라토노프가 당국으로부터 침묵을 강요당했던 1930년대 전반이야말로 작가 메모일지가 빼곡하게 채워졌던 시기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작가의 메모일지야말로 플라토노프 창작 연구에 있어서 단순 보조 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 독립적인 장르로 간주돼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²⁾ 따라서 플라토노프의 메모일지는 특별한 형태를 지닌 작가의 창작 보고(寶庫)에 다름 아니며, 바로 이 메모로부터 시작된 창작에 관한 작가의 전반적인 구상은 이후 다양한 작품의 층위로 촘촘히 엮여나가게 된다. 한편 1930년대 플라토노프 창작을 관통하는 중앙아시아 텍스트 역시 메모일지의 기록과 무관하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통해 얻은 사막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문화 공간에 대한 경이로운 인상은 1930년대 전반에 해당하는

1) А.А. Харитонов, Д.В. Колесова, “I-VI Платоновские семинары в Пушкинском Доме (1990-1994). IV Платоновский семинар. Андерей Платонов в контексте своей эпохи (28 октября 1992 года),” *Творчество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СПб.: Наука, 1995), с. 271-272.

2) Там же, с. 288-289.

기간에 걸쳐 작가의 메모일지를 촘촘하게 메우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으로 동양의 테마로 연결되면서 직간접인 방식으로 작품 층위에 반영된다.

이에 근거하여 본 글에서는 먼저 플라토노프의 창작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중편 『잔(Джан)』, 장편 『행복한 모스크바(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등 1930년대 작품과 함께 「뜨거운 극지방(Горячая Артика)」,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등의 에세이 및 메모일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작가의 세계관과 시각이 변화되는 과정과 그 근거를 추적해 볼 것이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1930년대에 집필된 플라토노프의 작품은 그가 1934년과 1935년 초에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했던 것과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중앙아시아 테마군’을 형성해내게 된다. 플라토노프 창작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테마는 단순히 ‘동양’에 관한 작가의 감상적 일지나 글쓰기 소재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를 문명에 의해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다분히 식민주의적 시각과 달리, 문명의 기원으로서 아시아를 바라보려는 플라토노프 특유의 차별화된 시각을 형성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1930년대 초중반에 집필된 플라토노프의 소설 및 에세이, 메모일지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작품에서 공백, 혹은 단절로 여겨지던 지점들이 유사한 시기에 집필된 다른 작품을 통해 완결성을 지니게 됨을 규명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작품들이 플라토노프 창작에서 중앙아시아 텍스트를 형성하는 기원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아시아를 바라보고 묘사한 플라토노프 특유의 세계관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신화적 사유의 틀 속에서,³⁾ 혹은 집필 중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회주의리얼리즘 노선을 준수하며 집필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⁴⁾ 1930년대 플라토노프 작품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작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복자의 시선이

3) Н.Г. Полтавцева, *Философская проза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Ростов-на-Дону: Изд-во Рост. ун-та, 1981), с. 108; Е. Ландау, “Странный и обыкновенный человеческий взгляд,” *Новый мир*, № 6 (1965), с. 253-254; В. Трубин, “Мистерия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7 (1965), с. 293-307; Л.А. Аннинский, “Запад и восток в творчестве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Народ Азии и Африки*, № 4 (1967), с. 103-115.

4) Thomas Seifrid, *Andrei Platonov: Uncertainties of Spirit* (UK: Cambridge Univ. Press, 1992).

아니라 서구 문명의 대안으로서 아시아를 바라본 플라토노프의 시선을 상세히 분석해냄으로써, 그의 작품 속에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포스트식민주의적 시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중앙아시아 텍스트: 기원-형성-발전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시기에 플라토노프 창작에서 두 가지 개념 층위 간의 갈등, 즉 과학기술문명 지상주의에 입각한 이성의 테마와 인간의 의식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자연의 테마 간 충돌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하지만 1930년대부터, 특히 중편 『잔』이 출판된 이후, 기존에 플라토노프의 창작에서 전면화되었던 인간의 이성 대신, 마음, 정신적 기원에 관한 문제가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로의 전환기에 집필된 중편 『코틀로반(Котлован)』에서 예견된 바 있다. 이 중편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소녀는 나스타처럼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혹은 온전한 인간으로, 새로운 역사적 공동체로 성장해나갈 것인가? 이 불안한 감정이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작품의 테마를 구성해냈다. 소녀의 죽음 속에서 사회주의 세대의 파멸을 묘사한 저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실수는 그저 무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근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파괴와도 맞먹는다.”⁵⁾

5) А. Платонов. *Котлован. Текст. Материалы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и* (СПб.: Наука, 2000), с. 116. 앞으로 본 작품에 대한 인용이 필요할 시 이 판본에 준하여 인용문 뒤에 작품의 약자 K와 페이지 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 포함된 플라토노프의 모든 작품과 에세이를 포함한 모든 원문에 대한 해석은 모두 필자가 직접 번역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본 인용문 내에 포함된 ‘эссерши’라는 단어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СССР)’이라는 단어에 여성형 명사의 접미사 ‘-ш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소비에트 신조어에 해당한다. 이에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소녀’라고 표기했다. 참고로 『코틀로반』의 판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에필로그’의 실체를 밝힌 하리토노프(A. Харитонов)는 그간 작품에서 삭제된 채로 남겨졌던 이 에필로그야말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의 경계에서 플라토노프가 행한 다양한 탐색의 결과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코틀로반』에서 누락되어 있던 ‘에필로그’와 소설 구성의 문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시오. А. Харитонов, *Способы выражения авторской позиции в повести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Котлован»*. Авторефер. дисс. ...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СПб., 1993), с. 3-22.

Погибнет ли эссерша подобно Насте или вырастет в целого человека, в нов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Это тревожное чувство и составляло тему сочинения, когда его писал автор. Автор мог ошибиться, изобразив в виде смерти девочки гибель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эта ошибка произошла лишь от излишней тревоги за нечто любимое, потеря чего равносильна разрушению не только всего прошлого, но и будущего.

다분히 의미심장하게 마무리되는 『코틀로반』의 에필로그에서 미묘하게 동료하는 작가의 내적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1930년대에 집필된 장편 『행복한 모스크바』의 구성 및 텍스트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 13개의 장(глава)으로 이루어진 소설 전반부에 해당하는 6개의 장은 플라토노프 창작에 있어서 모종의 전환점이 되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필되었다.⁶⁾ 이후 작가는 소설의 집필을 잠시 미루어 둔 채, 중편 『잔』, 『타키르(Такыр)』 등 ‘아시아’ 테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작가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 이미 절반가량의 집필이 이루어진 소설 『행복한 모스크바』의 주요 슈젯이 변경되는 시점은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이다. 여행 이후 소설의 주요 테마는 ‘신인간’ 프로젝트와 더불어 이성과 합리성이 주도하는 신세계 건설에서 갑자기 ‘신인간’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주인공 모스크바 체스노바의 몰락에 관한 이야기로,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문제로 전환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플라토노프가 여행 이후 한동안 ‘아시아’ 테마 작품군을 작업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앞두고 플라토노프는 텅 빈 오지와 다름없는 사막의 개조에 관한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구현해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플라토노프는 소위 ‘소비에트의 동양’이라는 공동 저술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참가 목적을 적어서 제출했다.

6) 플라토노프는 1930년대 중반에 총 2회에 걸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의 첫 번째 여행은 1934년 3월 24일에 이루어졌다. 플라토노프는 당시 소비에트의 동양으로 일컬어지던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뒤에 이를 소재로 작품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소비에트 작가원정대의 일원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듬해 1월 플라토노프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초청으로 제2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을 떠나게 된다. А.П. Платонов,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ИМЛИ РАН, 2000), с. 364-365. 앞으로 메모일지에 대한 인용이 필요할 시 이 판본에 준하여 인용문 뒤에 약자 ЗК와 페이지 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나는 한때 빈곤하기 그지없는 맨발바닥으로 보잘것없는 아버지 세대의 주검을 따라 여기저기를 떠돌았지만, 황무지와 다름없는 고향을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 관한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강조-플라토노프)

“Я хочу написать повесть о **лучших людях Туркмении**, расходующих свою жизнь на превращение пустынной родины, где некогда лишь убогие босые ноги ходили по нищему праху отцов, - в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снаряженное мировой техникой.”⁷⁾

신청서에 적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원시성으로 가득한 척박한 아시아 사막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이를 개조와 개척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이 비교적 명확하게 느껴진다. 또한 이는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사절단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작가 대부분이 공유했던 시각이기도 했다. 이들은 “행복은 불세비키로부터, 소비에트 정권으로부터 온다”⁸⁾라는 소위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연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 문명의 잔재들, 자신들만의 삶의 법칙과 시간의 속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인들의 삶을 직접 접하며 중앙아시아에서의 여정이 거듭될수록, 당초 플라토노프가 기획했던 동양의 테마, 아시아 테마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사막에서의 삶을 직접 경험한 이후 플라토노프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은 그가 당시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드러난다.

“만일 **내가 사막을 보지 못했다면, 난 아마도 절대 사막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요”;

“우리는 첫 별이 뜰 때까지 있었소. 별빛 아래 사막은 내게 매우 큰 인상을 남겼소. **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뭔가를 이해하게 됐지.**” (강조-인용자)

“Я никогда не понял бы пустыни, если бы не увидел ее, - книг таких нет.”;

“Пустыня под звездами произвела на меня огромное впечатление. **Я кое-что понял, чего раньше не понимал.**”⁹⁾

7)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8 ноября 1989.

8) Э.Ф. Шафранская, Т.В. Волохова, “Поэтика ориентализма: повесть Леонида Соловьева 『Кочевье』,”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Журналистика*. Т. 25. № 4 (2020), с. 650.

9)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М.А. и П.А. Платоновым (30 марта 1934 г. Станция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Я прожил жизнь”: *Письма. 1910-1950 гг.* (М.: Астрель, 2013), с. 345-346.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사막에서의 여정은 황량함을 광활함으로 느끼게 해주고, 텅 빈 모래사막의 공허함 속에 오롯이 남겨진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남다른 시간을 플라토노프에게 선사해줬다. 사막으로부터 받은 강렬한 인상, 현실에서의 삶, 도시에서의 삶과 다른 형태의 삶, 빈곤 속에서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 등은 중앙아시아를 직접 경험하기 이전에 플라토노프가 지니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막연하고도 부정적인 인상을 털어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여행은 작가-플라토노프에게 수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결국 1934년 5월, 첫 번째 투르크메니스탄 탐사를 마치고 모스크바로 복귀한 플라토노프는 먼저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사회주의 10주년 기념 문집 『찬란한 나날들(Айдинг-Гюнлер)』¹⁰⁾을 위한 단편소설 『타키르(Такыр)』의 집필을 마무리했으며, 이듬해 떠난 제2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의 결과물로 중앙아시아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중편소설 『잔』을 완성하게 된다.¹¹⁾

특히 아시아의 빈곤함을 반드시 퇴치해야 하는 것,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던 과거와 달리, 빈곤함을 이기고 끈질기리만큼 살아남은 사막 속 아시아인들과 그러한 생명력의 근원에 대한 작가의 호기심은 플라토노프 자신이 창조한 작품 속 주인공의 행동과 생각에도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편 『잔』에서 주인공 ‘나자르 차가타예프’와 부분적으로 이름이 일치하는 잔 민중 출신의 남성 ‘나자르-샤키르(Назар-Шакир)’가 사망하는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나자르-샤키르의 사망 전날, 차가타예프는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밤에 사막의 어두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모래도 바람 끝자락을 쫓아 허둥지둥 날아다니고 점차 양떼의 흔적을 영원히 뒤덮어버렸다. **차가타예프는 이곳에서 삶을 이해했다.**” (강조-인용자)

“Ночью пошел пустынный темный ветер, песок тоже побрел за тем ветром

10) Айдинг-Гюнлер. Альманах к 10-летию Туркменистана. М.: ГИХЛ, 1934. с. 3.

11) 플라토노프의 중편소설 『잔』의 출판 역사 및 투르크메니스탄 여행과의 연관성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송정수, “텍스트문헌학적 접근 방식을 통한 작가 상호텍스트성 고찰 -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제20권 제2호 (서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5), pp. 174-175.

12) 투르크메니스탄 세계에 속하는 잔 민중의 일원 나자르-샤키르의 육체적 죽음이 소비에트 세계로부터 파견된 나자르 차가타예프의 내적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과 상징성, 더 나아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신-타인’ 테마의 전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시오. *Ibid.*, pp. 180-182.

и постепенно закрыл навсегда овечьи следы. **Чагатаев понял здесь жизнь.**”¹³⁾

나자르-샤키르의 죽음은 차가타예프라는 인물의 내적 부활, 내면적 소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차가타예프는 이제 더이상 외부인이나 제3자의 모습으로 과거 한때 자신의 동족이었던 ‘잔’ 민중의 세계를 지켜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문명세례자의 신분으로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밀한 무엇인가를 밀쳐내고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경험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

중앙아시아의 개척자라는 신분으로 소비에트 연방에서 파견된 차가타예프와 사막의 원주민과 다름없는 나자르-샤키르 간의 상징적인 역할 교대 및 전이를 통해 그동안 ‘타인’의 신분으로 잔 민중과 동화되지 못했던 차가타예프는 비로소 진정한 잔 민중의 일원이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플라토노프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Я кое-что понял, чего раньше не понимал”), 플라토노프의 주인공 차가타예프가 작가 스스로 자신의 메모일지에 남겼던 내밀한 삶의 비밀을 이해하는 자와 일치되는 순간, 즉 가난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과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심장’을 가진 작가의 페르소나로 거듭나게 되는 시점 역시 바로 두 명의 나자르가 죽음과 부활을 상대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이다. ‘심장’이야말로 곤궁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의 삶을 하나가 되어 함께 견디고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이는 작가의 메모일지에 기록된 사막에 관한 글귀와 플라토노프 자신이 사막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아내에게 전한 편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인류의 고향이 **이토록 황량하고 인적이 없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체 **무엇이 이 곳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줬단 말인가?**”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родина человечества столь пустынна и нелюдима. **Что здесь связывало людей?**”¹⁴⁾

“<...> 우리는 정말 가난하지만, **우리에게 가난 말고도** 애타게 그리워할 수 있는 **심장이 있지 않소..**”

13) А. Платонов, “Джан,” *Проза* (М.: Слово, 1999), с. 484. 앞으로 이 중편소설의 인용은 이 판본에 따르며, 약자 ‘Д’와 함께 쪽수만 표기한다. 본 논문에 인용된 러시아어 텍스트의 해석은 모두 저자의 것임을 밝힌다.

14) А. П. Платонов,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ИМЛИ РАН, 2000), с. 137.

“<...> мы очень бедные, но у нас кроме бедности есть еще и сердце, которое может сильно тосковать....”¹⁵⁾ (강조-인용자)

한편 플라토노프가 틈틈이 작성한 메모일지(записные книжки)는 중앙아시아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 형성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한다.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라는 단어의 의미를 축어적으로 옮기면 ‘메모일지’가 되지만, 플라토노프의 경우 메모일지가 단순한 메모의 의미를 넘어서, 작품 구상 및 아이디어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따라서 플라토노프의 메모일지는 그 자체로 작가 노트의 기능을 담고 있으며, 그가 메모일지 외에 별도의 일기나 작가 노트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특별한 기록물은 응축된 형태의 서사와 수많은 은유로 점철된 플라토노프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그 창작 의도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단서를 제공한다. 비록 정확한 기록 일정과 기록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일기나 회고록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플라토노프의 메모 일지에는 당시 소비에트 현실에 관한 작가의 예리한 관찰과 서술이 반영되어있음은 물론, 작가이면서 동시에 공학자이자 실천가로서 활동했던 플라토노프의 행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대를 관통하는 작가의 행적과 생각은 단순한 기록에 멈추지 않고, 작품을 위한 모티프와 구성으로 스며들며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간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플라토노프의 메모일지는 작가의 자기 회상록에 견줄 수 있는 작가 노트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일상과 작품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작가의 독특한 창작 일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934년도에 작성된 플라토노프의 메모일지 곳곳에서 아시아 테마가 적잖이 관찰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매우 상반된 시각으로 조명된 ‘아무 강(Амударья)’¹⁶⁾에 관한 메모가 눈길을 끈다. 플라토노프는 아무 강을 두고

15)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М.А. и П.А. Платоновым (30 марта 1934 г. Станция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Я прожил жизнь”: Письма. 1910-1950 гг. (М.: Астрель, 2013), с. 345-346.

16) ‘Амударья’라는 단어는 고대 페르시아어 ‘Амуль’과 ‘Дарё’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Амуль’은 아물강에 위치한 도시로,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는 ‘차르드조우(Чарджоу)’로, 현재는 ‘투르크메나바드(Туркменаба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Дарё’는 페르시아어 ‘دریا’에 해당하며, ‘강’을 의미한다. <https://dzen.ru/a/YCQHcx3d1tWzk5v> (검색일: 2023.09.24). 몇몇 문헌에서는 ‘Амударья’를 ‘아무다리아’ 또는 ‘아무다리아 강’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중어적 표현을 피하고자 해당 단어를 ‘아무 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또한 ‘아무 강’의 또 다른 명칭은 ‘드제이훈(Джейхун)’으로 ‘폭풍과도 같은’, ‘자유분방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페르시아 및 타지키스탄 문화와 신화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어왔다. А. Платонов,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ИМЛИ РАН, 2000), с. 373.

한편으로는 ‘인류의 강(река человечества)’, ‘인류의 발원지(прародина человечества)’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유해(прах прошлого)’, ‘최초 문화의 무덤(кладбище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культур)’¹⁷⁾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아시아적 특수성, 중앙아시아 사막이 간직한 모순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플라토노프 특유의 변증법적 서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아무 강의 침전물**은 흑토보다 더 비옥하다. 그 침전물은 **과거의 잔해**이다. 우글쭈글한 **역사의 직조물**은 천연의 거름이 간직한 신선함보다 **미래를 위해 더 값싼 원료**가 된다. 비관론은 낙관론을 위한 최고의 광석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사실이다!” (강조-인용자)

“**Ил Аму** плодоносней чернозема: он **прах прошлого**. Перемятая **ткань истории** лучшее **сырье для будущего**, чем свежесть девственного перегноя. Пессимизм лучшая руда для оптимизма. Странно, но верно!”¹⁸⁾

과거는 미래의 원료가 되며, 침전물은 비옥함을 위한 초석이요, 비관론은 낙관론을 이야기하기 위한 바탕이라는 메모의 내용은 죽음과 부활, 소멸과 생성의 상관관계를 빚댄 말이자, 더 나아가 이러한 순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이른바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에 관한 플라토노프적 시각을 대변한다.

한편 중편 『잔』에서 주인공 차카타예프가 자신의 동족을 찾아 나선 투르크메니스탄 내 ‘히바 장터(хивинский базар)’의 장면은 1930년대에 집필된 또 다른 소설 『행복한 모스크바』에 나오는 모스크바의 ‘크레스토프 시장(Крестовский рынок)’과 반향을 이룬다. 만일 역사가 이끄는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신화가 아닌, 사회주의 이념과 과학기술적 이상에 의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새로운 신화를 지향하며 “미소를 머금은 겸손한 스탈린이 이제 막 생겨난 미지의 사회주의 세계의 모든 길목을 거리마다, 광장마다 수호하고 있었다면(улыбающийся, скромный Сталин сторожил на площадях и улицах все открытые дороги свежего, неизвестного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мира)”,¹⁹⁾ 히바의 장터를 가득 메우고 이를 지키는 대상은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듯 정겹게 속속대면서

17) Там же, с. 134.

18) Там же, с. 137.

19) А. Платонов,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М.: ИМЛИ, 1999), с. 95.

따뜻한 수증기를 내뿜는 “큼지막한 사모바르(большие самовары)”(Д, 519)이다. ‘크레스토프 시장’을 수호하는 스탈린은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초소에서 시장 속 인파를 내려다보는 경찰의 이미지와 중첩되는데, 이러한 풍경은 광장 한가운데에 낮은 목재 책상이 놓여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허물어뜨릴 수 있는 진흙 담장이 서 있는 ‘히바 장터’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처럼 도시 모스크바의 수직지향적 공간과 변두리 장터 히바의 수평지향적 공간은 강한 대립축을 형성해내면서, ‘크레스토프 시장’이 위치한 모스크바 공간은 ‘수호’보다 ‘감시’의 의미가 한층 강화된 공간으로, ‘히바 장터’는 언제든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시된다.

두 장소에서 판매하는 물품 역시 매우 대조적이다. ‘히바 장터’에서는 암양 생가죽, 살구 등을 비롯하여 거북이 등딱지, 말린 도마뱀에서 직접 뜯 양말, 양철 장식품, 쇠조각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막의 재물’로 불리는 소박한 물건들이 거래된다. ‘크레스토프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 역시 초상화, 아이 배내옷, 19세기형으로 제작된 오래된 옷, 망치, 못 한 줌 등 외견상으로는 얼핏 ‘히바 장터’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유사하게 비춰진다. 하지만 ‘히바 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누군가의 필요(товары для своей нужды)’를 위해 판매되는 물건이자, 삶을 지속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이 장터는 차가타예프와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반면 ‘크레스토프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이미 ‘삶의 의미를 상실한 물건들(вещами, которые потеряли свой смысл жизни)’이며, 심지어 이곳은 공공연하게 낙태가 행해지는 죽음의 공간으로 표상된다. 또한 ‘히바 장터’ 내에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한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 ‘товары’가 존재한다면, ‘크레스토프 시장’은 소유라는 목적지향적 의미가 더 강하게 발현되는 단어 ‘вещи’에 의해 점유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거래는 수입도 손실도 없이 같은 가격(Торговля шла тож на тож, без прибыли и без убытка)”(Д, 519)으로 이루어지는 ‘히바 장터’와 달리, 스탈린의 초상이 마치 파수꾼처럼 지키고 서 있는 ‘크레스토프 시장’, 더 나아가 모스크바라는 도시 공간 및 해당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보여주는 소유에 대한 탐욕스러움은 은유적으로 드러내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스탈린이 자연에 반하는 또 다른 세계의 창조자, 자연적인 삶의 리듬이 지배

하는 세계와 다른 심장 박동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은 제1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이후 작성된 작가의 메모 일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에 가족이, 친척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단 하나의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스탈린은 모두의 아버지 또는 모두의 큰형이다. 스탈린은 이제 막 생겨난 빛나는 인류의 아버지, 다른 자연, 다른 심장을 지닌 아버지이다.

Истина в том, что в СССР создается семья, родня, один детский милый двор, и Сталин - отец или старший брат всех, Сталин- родитель свежего ясно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другой природы, другого сердца. (ЗК, 157)

게다가 비록 우울한 화풍이긴 하지만 ‘인간의 일생’을 테마로 제작한 양탄자를 판매하는 ‘히바 시장’과 대조적으로, ‘크레스토프 시장’에서 판매되는 초상화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점 역시 스탈린이 배제된 외곽의 ‘히바 장터’가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리비도(Libido)’ 지향성에 충실한 공간인 반면, 스탈린이 수호하는 ‘크레스토프 시장’, 더 나아가 스탈린의 권력이 점유하고 있는 도심 공간은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보다는 ‘타나토스(Thanatos)’ 지향성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사막 공간에서 히바 도심의 시장으로 배경이 전환되면서 차가타예프의 삶의 여정도 사막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 ‘생산’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 역시 매우 상징적이다. 사막과 시장은 공간적으로도 ‘텅 빔’과 ‘포화’라는 대립축을 형성하며, 의미론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유물화된 공간’, ‘박제화된 공간’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한 잠재적 생명 탄생의 공간으로 상징화된다. 실제로 주인공 차가타예프는 히바 시장에서 만난 여인 ‘하눔(Ханом)’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넘어서서 “앞으로 타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일만 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구현(олицетворение того, что в нем самом еще не сбылось и не сбудется, что останется жить после него - в виде другого)”²⁰⁾이라는 상징적 문구를 통해 미래세대의 탄생에 대한 암시와 함께 ‘생산성’을 강조한다. 작가의 메모일지에도 ‘장터’ 관련 메모에서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20) А. Платонов, “Джан,” *Проза* (М.: Слово, 1999), с. 521.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이자 우정이다. 사막에 사는 인간은 외로움 때문에 장터에 오곤 한다 <...> 이곳에서 사막의 여자들은 구혼자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친구들은 잔치를 벌인다. 이곳은 ‘**일요일**’이다. (강조-인용자)

Базар это не только торговля, это и общество и дружба. Пустынный человек приходит на базар из своего одиночества <...> Здесь встречаются женщины из песков со своими женихами, здесь пируют друзья, здесь - “**воскресенье**”. (ЗК, 163)

메모의 말미에 삽입된 ‘일요일(воскресенье)’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부활(воскресение)’, 소생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형성해내면서 생명의 잉태와 더불어 ‘미래세대를 통한 부활’이라는 표도로프 철학에도 의미론적 반향을 일궈낸다.

아울러 나자르가 다니던 모스크바 경제연구소 뒷마당 역시 스탈린이 점유한 공간이자 도시 속 또 다른 문명의 공간에 속하는데, 이 공간 역시 『행복한 모스크바』에 나오는 ‘크레스토프 시장’을 연상시킨다. 마당은 구시대 유물과 버려지거나 방치된 물건들로 가득하다.

러시아인이 아닌 청년 나자르 차가타예프가 모스크바 경제연구소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 마당을 따라 우연히 돌아난 풀이 자라나 있고, 모퉁이에는 쓰레기통이 놓여있었다. 그 뒤로 쓰러져가는 목재 창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은 오래된 사과나무가 외롭게 서 있었다 <...> 좀 더 가다 보면 19세기 증기 기관차에서 떨어져 나온 철제 바퀴가 땅에 콧 박혀있었다. 마당은 텅 비어있었다.

Во двор Москов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ышел молодой, нерусский человек Назар Чагатаев <...> По двору росла случайная трава, в углу стоял рундук для мусора, затем находился ветхий деревянный сарай, и около него жила одинокая старая яблоня без всякого участия человека <...> неизвестно откуда, и еще далее впилось в землю железное колесо от локомотива девятнадцатого века. Двор был пуст. (Д, 439)

바로 이 텅 빈 공간에서, ‘이성의 산’ 꼭대기에 높이 올라서서 ‘저녁 태양’으로 달궈진 여름날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차가타예프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닌 이성의 산으로 높이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잠잠해진 **저녁 태양**으로 달궈진 여름날의 세상이 훨씬 더 잘 보였다. (강조-인용자)

Он взошел теперь высоко, на гору своего ума, откуда виднее весь этот летний мир, нагретый **вечерним** отшумевшим **солнцем**. (Д, 439)

한때 상징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에 자리하고 있었던 차가타예프는 소설의 중반 이후, 또 다른 텅 빈 공간, 즉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사르-카미쉬(Сар-Камыш)’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리고 사막에 도착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강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도시에서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움직임 보여준다. 이는 일차적으로 웅덩이, 계곡 등의 지형으로 이루어진 사막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스크바 공간에서 이성적 사고와 도시 문명에 길들여진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차가타예프의 관점이 다소 혼돈스럽고 고단하긴 하지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잔 민중의 세계관에 점차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주인공의 동선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그리고 차가타예프가 아이딴과 함께 모스크바로 다시 귀환하는 시점에는 오히려 반대로 잔 민중이 우스타우르트 고지대 언덕 위에서 이들을 내려다보며 배웅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연적 삶의 소리 없는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날 아침 나자르와 아이딴은 길을 가면서 먹을 약간의 음식을 챙겨서 우스타우르트의 고지대에서 내려왔다. 잔 민중 전체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타예프는 사르-카미쉬의 협곡으로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민중은 아직도 모두 언덕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Одним утром Назар и Айдым взяли немного пищи с собой на дорогу и спустились с возвышенности Усть-Урта. Весь народ джан вышел их провожать. Сойдя во впадину Сары-Камыша, Чагатаев оглянулся; народ все еще стоял на взгорье и следил за ним. (Д, 531)

한편 중편 『잔』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나자르가 다니는 연구소를 홀로 외로이 비추고 서 있는 태양에 대한 묘사는 마치 소설 『행복한 모스크바』 속에서 ‘크레스토프 시장’을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다보며 감시하듯 지키고 서 있는 듯한 스탈린 형상에 대한 또 다른 은유적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여름날 세상을 달구는 태양”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낮’이 아닌 ‘저녁’으로 선택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양립불가능한 단어들의 병렬 배치를 통해 종종 ‘혀짚배기 어린애 소리’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곤 했던

플라토노프 특유의 언어 스타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탈린 시대에 기획된 ‘대가족 신화’를 떠받치기 위한 장치로 종종 사용되곤 했던 ‘태양수사학’²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스탈린을 겨냥한 ‘태양’의 수식어로 ‘낮’이 아닌 ‘저녁’이라는 형용사를 선택한 것은 ‘스탈린이 지배’하는 세계로부터 ‘스탈린이 배제’된 세계로의 주인공의 이동, 혹은 스탈린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이성을 추앙하며 살아갔던 주인공이 다시금 자연의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태양수사학’을 통해 은유적으로 제시되는 스탈린과 스탈린 세계의 쇠퇴와 몰락은 솔로비요프(B. Соловьев)의 「빛은 동방으로부터(Ex oriente lux)」라는 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서양의 문명에 의해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동양, 혹은 이성과 법의 힘으로 지배되어야 할 동양이 아닌, 문명을 존재하게 한 이성과 법의 힘으로도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양의 잠재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포스트식민주의적 세계관으로까지 그 해석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С Востока свет, с Востока силы!» И, к вседержительству готов, Ирана царь под Фермопилы Нагнал стада своих рабов. <...> И силой разума и права — Всечеловеческих начал — Воздвиглась Запада держава, И миру Рим единство дал. <...> И слово вещее не ложно, И свет с Востока засиял, И то, что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Он возвестил и обещал. ²²⁾	<동양으로부터 빛이, 동양으로부터 힘이 나온다>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이란의 황제는 테르모필레 골짜기 아래로 노예들의 무리를 몰아넣었다. <...> 전 인류의 근본을 이루는 이성과 법의 힘으로 서양의 열강이 우뚝 솟아오르고 로마는 세계가 통일되도록 만들었다. <...> 예언은 거짓이 아니다, 동양으로부터 온 빛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을 선포하고 약속했다.
--	--

21) 소비에트 민요에서 스탈린은 종종 생명과 빛의 원천으로서 빛에 비유되곤 했으며, 우즈베키스탄 민요에서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취지는 태양”으로 묘사되곤 했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이미지는 종종 종교적 층위로 끌어올려 지면서, 아버지, 빛, 태양, 별, 독수리, 매의 이미지로 구현되곤 했다. И. Пападопулу, “Сталинский миф: официальный образ вожд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Журналистика*, № 4 (2015), с. 74; <https://jlm-taurus.livejournal.com/16843.html> (검색일: 2023.11.03).

이처럼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여행 이후 플라토노프의 소설 배경은 자연스럽게 도시 텍스트, 모스크바 텍스트에서 주변부 및 중앙아시아 텍스트로 옮겨지게 되며, 소설 공간의 변경은 서사 대상의 변화로 이어진다. 만일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직전까지 집필이 이루어졌던 『행복한 모스크바』 전반부에서 주인공의 이성이 우위를 점하고 인간의 이성적 행위를 방해하는 영혼의 기원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면, 사막 공간에서 주인공을 진정한 인간적 존재, 누군가로 인해 아파하고 그리워할 줄 아는 ‘심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다. 이렇게 모스크바 공간, 스탈린이 사회주의 이상과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의 원형으로 창조해 낸 도시에서 동물적이고, 불완전한 요소로 취급받으면서 부정되었던 삶의 기원으로서 영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영혼이 지배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중앙아시아 사막 공간에 대한 탐색은 이후 플라토노프가 떠난 제2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의 결과물로 집필된 2편의 에세이 「뜨거운 극지방(Горячая Артика)」과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

철학적 성격을 지닌 플라토노프의 수필 「뜨거운 극지방(Горячая Артика)」과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는 작품 활동 및 출판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1930년대 작가의 창작 공백을 대체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이 작품은 플라토노프의 제1차, 제2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과도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중앙아시아 텍스트’를 형성해내게 된다.

작가의 메모일지에 연속적으로 기록된 다음 3개의 글귀는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라는 수필이 집필된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노인: 우리가 고의로 신을 거스르는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일은 정말이지 잘 될 턱이 없지. 우리는, 이 세상은 모조리 끔찍한 함정에, 막다른 골목에 걸려든 게야. 아마도 역사상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닐 게야” (열차, 10월 8일);

“**티무르가 대체 뭐지? - 사막이지?**”;

“**대지는 하찮고 황량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엾기 그지없는 양면성을 두고 문화라고 부른다!**” (강조-인용자)

22) B. Соловьев. *Ex oriente lux*. (1890). <https://rupoem.ru/solovev/s-vostoka-svet.aspx> (검색일: 2023.10.13).

“Старик: “Даже выдумать что-нибудь нароч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е гдъ (господу) не удастся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ы – весь мир, попались в страшную ловушку, в мертвый тупик. Вероятно, в истории это уже бывало не раз” (Вагон, 8/X)”;

“Что же такое Тамерлан? - Пустыня.”

“Земля невелика и необильна, - и это жалкое приспособленчество мы называем культурой!”²³⁾

상기의 메모 중 마지막 세 번째 메모에 등장하는 “대지는 하찮고 황량하다”는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에서 “자연은 위대하지도 풍요롭지도 않다”²⁴⁾라는 변형태로 도입된다. 또한 세 개의 메모는 모두 1934년 1차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이후 작성된 메모일지에 해당하며, 중간에 다른 메모 기록 없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페이지 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메모의 기록은 플라토노프가 중앙아시아를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을 그대로 옮긴 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아직은 여행에 동행한 타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사막을 ‘하찮고 황량한 지역’으로 여기며 동양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때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에 제국을 건설하고 실크로드 문화를 꽃피웠던 ‘티무르’의 이름이 사막, 즉 하찮고 황량한 대지와 동렬로 취급되고 있는 문장 구성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934년도 기록에 해당하는 작가의 메모일지는 몇 페이지가량 이어지다가 전화번호 및 주소록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바로 1935년도 메모일지가 시작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작가의 초고나 타자본에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의 집필 시기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1934년 10~12월 사이 정도로 그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자연은 위대하지도 풍요롭지도 않다. 혹은 가혹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태 그 누구에게도 그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내어주지 않았다(Она(природа) не велика и не обильна. Или так жестоко устроена, что свое обилие и величие не отдавала

23) А. Платонов, *Зат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ИМЛИ РАН, 2000), с. 147-148.

24) 이 문구가 들어가는 앞뒤 전문은 다음과 같다: “Надо быть в рядах обыкновенных людей терпеливой социали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больше ничего. Этому настроению и сознанию соответствует устройство природы. Она(природа) не велика и не обильна. Или так жестоко устроена, что свое обилие и величие не отдавала никому” А. Платонов, “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А. Платонов: Восточн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Современный писатель, 1994), с. 320.

никуму)”라는 글귀는 이후 집필된 「뜨거운 극지방」에서 “사막은 충분하리 만치 풍요롭고 그것을 정복할 마음을 불러일으킨다(Пустыня достаточно обильна и позволяет произвести ее завоевание)”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삽입된다. 만일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에서 자연으로 상징화된 투르크메니스탄을 위시한 중앙아시아 제 민족 및 그 지역이 소비에트 문명과 권력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대상이라는 시각이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뜨거운 극지방」에서는 소비에트의 중앙에서 소위 ‘소비에트의 동양’이라는 주변부를 바라보는 다분히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이 엿보인다. 시기적으로 더 늦게 집필된 「뜨거운 극지방」에서 표면적으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더 강화되는 이유는 앞서 집필된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에 대한 동료 작가들의 비난 및 ‘출판 부적합’²⁵⁾ 판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토노프가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여행 초기와 후반부, 1차 여행 이후 작성된 플라토노프의 메모를 좀 더 세밀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실제 플라토노프의 시각은 이미 초기의 오리엔탈리즘적 세계관에서 이탈하여, 문명에 의해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중앙아시아 사막 모래더미와 강바닥에 잠긴 문명의 흔적에 감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여행 이후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작성된 메모 일지 중, “투르크인이 러시아에 머물면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진 않는다. 하지만 러시아인은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물며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한다(Туркмену не все нравится в России, а русскому в Туркмении “все””, ЗК, 176)라는 글귀는 문명의 혜택이 항상 달갑지만 않은 투르크인들과 사막 자원의 ‘약탈’에 들뜬 러시아인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시각적 차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2차 여행을 앞두고 플라토노프는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긴 바 있다.

25) 플라토노프는 당시 고리키가 기획 중이던 『2번의 5개년 계획(Две пятилетки)』 선집에 게재할 목적으로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 타자본을 보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셰르바코프(Шербаков)의 격렬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의 텍스트 출판 역사 및 이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송정수, “텍스트문헌학적 접근 방식을 통한 작가 상호텍스트성 고찰 -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제20권 제2호 (서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5), pp. 186~188. Л. Аннинский, “Откровенное и сокровенное,” С. 16; Н.В. Корниенко, “Размышления читателя: Николай Никитин - рецензент рассказа <Такыр>,” Страна философов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а. Вып. 5 (2003), с. 736.

자연 속에서 인간은 ‘상부구조적’인 존재이다. 창조는 그가 아닌 ‘토대의’ 힘이 행하는 것이다. 그(인간-인용자)는 (절대적 의미에서 볼 때) 제한된 운명을 타고났으며, 상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인간-인용자)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Человек - “надстроечное” существо в природе; творит не он, а “базисные” силы. У него фатум - ограниченный (в абс<олютном> смысле), в относительном он сделает много.

결국 ‘인간은 피라미드적인 세계 구조 속에서 가장 상부에 자리잡고 앉아서 포식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하지만, 그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절대적인 힘’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명제는 「첫 번째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에 삽입된 자연은 너무도 “가혹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여태 그 누구에게도 그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문구와 반향을 이루게 되며, 이후 등장하는 “과학기술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техника... решает все)”²⁶⁾라는 글귀에 대한 안티테제를 형성하면서, 문명이 ‘소비에트의 동양’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그것의 완전한 정복 역시 처음부터 불가능 구조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제시한다.

Ⅲ. 결 론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에게 있어서 1930년대는 창작의 분기점이자 동시에 ‘중앙아시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작품군을 탄생시킨 시기로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2회에 걸친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여행 역시 이 시기 작가의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작가의 메모일지에 남겨진 여행의 흔적과 ‘소비에트 아시아’로부터 얻은 특별한 인상은 1930년대 초중반에 집필된 다양한 작품으로 스며들어 가면서,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화된 플라토노프만의 ‘동양 텍스트’,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텍스트’를 형성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30년대 플라토노프 텍스트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

26) А. Платонов, “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А. Платонов: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Современный писатель, 1994), с. 320.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단순히 소비에트의 아시아, 동방에 개척되어야 할 미지의 땅, 소비에트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전초 기지의 상징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플라토노프가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에 매진하던 1920년대, 유토피아 기획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1920년대 말을 거친 뒤, 다분히 이념적, 지엽적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는 소비에트 유토피아, 공동의 유토피아에서 벗어나 비로소 개인의 유토피아, 현실 속 유토피아로 돌아서게 되는 작가의 근본적인 세계관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분히 의미심장한 공간이 된다.

동시에 플라토노프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전반부 집필을 마쳤던 장편소설 『행복한 모스크바』의 경우, 여행 이후 집필된 후반부의 내용은 이성과 과학, 신세계 건설에 몰두하던 주인공들이 감정으로 달뜬 심장과 영혼의 문제로 갈등하다 결국 소비에트 공간을 대표하는 모스크바로부터 점차 이탈하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1934년 중반에서 1936년까지 작성된 작가의 메모일지 역시 절반 이상의 분량이 『행복한 모스크바』의 구상과 스케치에 할애되어 있으며, 내용 역시 대부분 변신과 영혼의 탐색에 집중되어 있는 점 역시 중앙아시아 지역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이 이 시기 플라토노프 창작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뚜렷하게 시사한다. 더 나아가 마땅히 소비에트 문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지역, 개혁과 개조의 대상으로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던 초기 플라토노프의 시각이 빈곤함 속에 자신만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채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사막 생태계의 모습에 동화되어 가는 것 역시 주목할 지점이다. 동시에 소비에트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과거 문명의 잔해가 문헌 인류의 기원으로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플라토노프의 세계관적 전환은 동시대에 활동한 다른 작가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 견지하고 있던 식민주의적 관점과 차별화되면서, 플라토노프 작품을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 속에서 연구해 볼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플라토노프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중편 『잔』은 당초 중앙아시아 내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 소비에트사회주의가 이식된 후 건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고리키의 주도로 기획된 『Айдинг-Гюнлер』 선집 수록을 목표로 집필된 작품이었지만, 유사한 시기에 집필된 다른 일련의 에세이와 함께 그간 ‘상상된 동양’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쪽으로 집필 방향이 전환되

었고, 그 결과 작가의 창작 전반과 세계관의 변화는 물론, 식민주의적 기획 속에서 탄생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맹아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송정수. “텍스트문헌학적 접근 방식을 통한 작가 상호텍스트성 고찰 - 안드레이
뿔라또노프의 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 『슬라브학보』, 제20권, 제2호
서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5.
- Айдинг-Гюнлер. Альманах к 10-летию Туркменистана.* М.: ГИХЛ, 1934.
- Аннинский, Л.А. “Запад и восток в творчестве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Народ
Азии и Африки*, № 4 (1967).
- Аннинский, Л. “Откровенное и сокровенн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 9 (1989).
- Корниенко, Н.В. “Размышления читателя: Николай Никитин - рецензент
рассказа <Такыр>,” *Страна философов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а*, Вып.
5 (2003)
- Ландау, Е. “Странный и обыкновенный человеческий взгляд,” *Новый мир*,
№ 6 (1965).
-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8 ноя. 1989.
- Пападопулу, И. “Сталинский миф: официальный образ вожд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Журналистика, № 4
(2015).
- Платонов, А. “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А. Платонов: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Современный писатель. 1994,
- Платонов, А. “Джан,” *Проза.* М.: Слово, 1999.
- Платонов, А.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М.: ИМЛИ, 1999.
- Платонов, А. *Котлован. Текст. Материалы творческой истории.* СПб.:
Наука, 2000.
- Платонов, Андрей. “М.А. и П.А. Платоновым (30 марта 1934 г. Станция
Аральское море),” “... Я прожил жизнь,” *Письма. 1910-1950 гг.*
М.: Астрель, 2013.
- Платонов, А.П. *Записные книжки. Материалы к биографии.* М.: ИМЛИ
РАН, 2000.

- Полтавцева, Н.Г. *Философская проза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Ростов-на-Дону: Изд-во Рост. ун-та, 1981.
- Солосьев, В. *Ex oriente lux*. (1890). <https://rupoem.ru/solovev/s-vostoka-svet.aspx> (검색일: 2023.10.13).
- Трубин, В. “Мистерия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7 (1965).
- Харитонов, А. *Способы выражения авторской позиции в повести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Котлован»*. Авторефер. дисс. ... канд. филол. наук. СПб., 1993.
- Харитонов, А.А, Колесова Д.В. “I-VI Платоновские семинары в Пушкинском Доме (1990-1994). IV Платоновский семинар. Андрей Платонов в контексте своей эпохи (28 октября 1992 года),” *Творчество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СПб.: Наука, 1995.
- Шафранская, Э.Ф, Волохова Т.В. “Поэтика ориентализма: повесть Леонида Соловьева 『Кочевье』,”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Журналистика*. Т. 25. № 4 (2020).
- Seifrid, Thomas. *Andrei Platonov: Uncertainties of Spirit*. UK: Cambridge Univ. Press, 1992.
- <https://dzen.ru/a/YSQНсxC3d1tWzk5v> (검색일: 2023.09.24).
- <https://jlm-taurus.livejournal.com/16843.html> (검색일: 2023.11.03).

Abstract

Andrei Platonov's Central Asian Text

Song Jung Soo

The first half of the 1930s marked a creative turning point for Andrei Platonov, as well as a time when he was forced into silence by the Soviet authorities. Although Platonov was forbidden to work or publish officially during this time, it was ironically during this “silent period” that the artist’s notebooks, which contained daily records and sketches of his work, were most densely populated. Meanwhile, the Central Asian texts that permeate Platonov’s creative output in the 1930s are not unrelated to the notebooks. The artist’s experiences in the desert and his phenomenal impressions of new cultural spaces gained from his travels in Turkmenistan densely filled his notebooks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1930s, immediately connecting with Oriental themes and reflected in the layers of his work,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us, Platonov’s works written in the 1930s have formed a ‘Central Asian theme’ in close connection with his experience of visiting Turkmenistan in 1934 and early 193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osely compare and analyze the works, notebooks, and essays of the 1930s, which represent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Platonov’s creative process, to analyze in detail the process and basis of the change in Platonov’s worldview and perspectiv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theme of Central Asia in Platonov’s work is not merely a material for sentimental writing about the ‘Orient’, but also the motivation for the formation of Platonov’s unique postcolonial worldview, which attempts to look at the region as the origin of civilization, breaking away from the colonialist views of his contemporaries, who considered Asia as an object to be transformed by civilization.

Such a series of works will broaden the interpretive horizons of Platonov’s works, which have so far been mostly conducted within the binary framework of ‘utopia vs. anti-utopia’ or mythological thinking, and suggest more diverse analytical

possibilities for his works. In addition, by closely analyzing Platonov's view of Asia as an alternative to Western civilization, rather than as a conqueror's gaze, it will be possible to identify, at least in part, the postcolonial gaze inherent in his work that is still valid today.